

“또래와 교류하며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받고, 구직 중 지친 마음을 회복할 공간이 필요해요.”

- 고용노동부-부산시, 청년의 내 일을 응원하는 ‘청년 잡(job) 성장카페’ 개소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는 4월 15일(월),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청년 잡(job) 성장카페’ 현판식을 개최하고, 간담회를 통해 참여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청년 잡(Job) 성장카페’는 올해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직장적용 지원)를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복합 취업지원 공간이다. 지역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파인드 미(find me)], 진로 탐색[서칭 잡(searching job)], 취업 역량 강화[컴페텐시 업(competency u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끝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 탐방 등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1:1 심리상담을 통해 청년의 마음 건강도 지킬 예정이다.

* 청년카페: 광주광역시의 ‘청년일자리 스테이션’, 대전광역시의 ‘D-유니콘 라운지’, 충청남도 공주시의 ‘강남청년일루와유’ 등 64개소 운영 예정

이날 이정식 장관과 박형준 시장은 ‘청년 잡(Job) 성장카페’의 개소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진행한 뒤,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 예정 청년, 2030청년자문단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이 원하는 실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학 휴학 중 막막함을 느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청년 씨는 “지역 청년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라며, “또래와 교류하며 진로탐색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직과정에 지친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홍보가 잘 되어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고,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우수 청년정책 협력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으며,

박형준 시장은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서 계속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부산만의 특색을 살려 청년성장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붙임 1: 행사 개요

붙임 2: 간담회 인사 말씀(장관)

붙임 3: 부산 청년잡(JOB) 성장프로젝트 사업개요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44-202-7451)
	청년취업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보 (044-202-7435)



붙임 1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4.4.15.(월) 10:30~11:50, 부산시 청년카페*

*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4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별관 1, 2층

□ 참석자(20명 내외)

-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정책관, 부산청장 등
- (부산광역시) 시장, 청년산학정책관 등
- (청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참여자(3),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거점 대학 대학생(3, 동의대·동아대·경성대 각 1), 입직초기 청년(1), 일경험 참여 예정자(2), 2030청년자문단*(보좌역)(1) 등 12명

* 2023년도 자문단 활동을 통해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설 제안

- (운영기관)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등

□ 세부 일정(안)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현판식	10:30~10:35	5'	• 현판 제막, 기념 촬영	장관, 시장 제막
시찰 및 이동	10:35~10:40	5'	• 이동(1층→2동) 및 현장시찰	부산시 청년정책담당관
간담회	10:40~10:42	2'	• 내빈 소개	
	10:42~10:50	8'	• 인사말씀 (장관(4'), 시장(4'))	
	10:50~10:55	5'	• 부산 청년성장프로젝트 프로그램 소개	부산시 청년산학정책관
	10:55~11:45	50'	• 자유 논의	참석자 전체
11:45~11:50	5'	• 기념 세레모니(기념촬영) - 슬로건 피켓		

< 인사말씀 >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부산 서면에 방문해보니
‘부산 이즈 굿’이라는 슬로건처럼
세계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허브 도시의 힘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 **GOOD**: **G**lobal(세계적이고)/ **O**riginal(특색있고)/ **O**pen(개방적이며)/ **D**ynamic(역동적임)

○ 이곳 부산광역시는 어떤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청년 잡(job) 성장카페’를 열고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 ▲ 자신감 회복 과정: 파인미(Find me) 트랙
▲ 취업 집중 과정: 서칭 잡(Serching job) 트랙
▲ 진로 집중 과정: 컴펜텐시 업(Compentency up) 트랙

○ 오늘 현판식을 비롯해
청년들과의 소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형준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청년 일자리 상황 >

올해 3월 청년고용률은 45.9%로
비교적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자리 미스매치와
수시·경력직 중심의 채용경향이 지속되는 등
청년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특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지역 청년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간, 청년들을 만나면서 구직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소진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직장에 입사한 뒤에도 의사소통 문제나 경직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직장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 그리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많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청년성장프로젝트 현황 및 향후 계획 >

□ 이러한 지역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복합 취업지원 공간인 청년카페에 방문하여, 경력설계, 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고, 마음회복을 위한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청년 상황에 맞는 정부·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촘촘히 연계하고, 취업 이후 직장적응까지 지원하는 토털 케어(total care)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부산시를 비롯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 정부도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정부와 자치단체의
우수 협력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여기 계신 청년 한명 한명이 일을 통해
지역 사회에서 기반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 아울러,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내실화하여
청년성장프로젝트와의 시너지(synergy) 효과를 높이고,
- 지역 내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를 확충하여
재학생의 진로설계 및 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 마지막으로, 이곳 부산 ‘청년 잡(job) 성장카페’가
청년의 안식처이자 교류의 장,
그리고 성장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여러분,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청년성장프로젝트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붙임 3 부산 청년잡(JOB) 성장프로젝트 사업개요

추진방향

비전
부산지역 청년수요 맞춤형 토탈케어 시스템 구축

- 추진 방향**
- ❖ '청년잡(JOB) 성장카페'를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청년취업 지원 거점 구축
 - ❖ 초기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 기업발굴과 매칭을 통한 기업-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 신입사원 온보딩 프로그램과 청년 친화 기업문화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및 지역 정주 유도



추진 목표

- '청년 잡(JOB) 성장 카페' 공간 조성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역량강화 5,000명, 심리상담 1,000명
-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 400명, 신입직원 온보딩 600명

〈체계도〉

